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권 상 철**

Migration to the Capital Region in Korea: Assess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Place Characteristics and Migrant Selectivity*

Sangcheol Kwon**

요약 :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역불균형발전의 원인으로 최근 지역인적자원육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구이동은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유출지역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유출지역의 배출요인과 이주자의 선별성으로 구분지어 검토해 볼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이들이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연령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며, 제조업 비율, 농촌/도시가 이전에는 중요하였으나 점차 최근으로 오며 교육수준, 노동직 비율, 제조업 비율, 그리고 실업률이 중요한 지역 특성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불균형발전이 심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두뇌유출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는 지역차원의 인재육성과 더불어 지역내에서 양질의 취업기회를 통한 이들 인재의 확보를 위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수도권, 인구유출, 이주자 선별성, 지역 특성, 상대적 중요도

Abstract :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for the pursuit of the balanced regional human capital development. Considering migration both as a geographic and a social movement, migration to the capital region could be examined in the push factors and the selective migrant characteristics from the out-migration region. Their relative importance reveals that age and education level are important in almost all years, but the importance of the percentage of manufacturing sector and rural/urban region moves to the years of education, the percentage of unskilled occupation and manufacturing sector and unemployment ratio recently. Since the brain drain has been occurring under the highly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 results suggest that regional human capital investment should be accompanied with enlarging quality employment opportunities to reap the benefits.

Key Words : capital region, out-migration, migrant selectivity, place characteristics, relative importance

1. 서론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왔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교육인적자원부, 2003). 최근의 지역인적자원육성을 강조하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는 지역차원에서의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인구이동을 지역간 기회구조의 차이에 따른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개인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이동으로 본다면 인구이동을 유출지역의 배출요인과 이주자의 선별성에 따른 결과로 인적자원의 이동 측면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Feser and Sweeney, 2003; 권상철, 2001; Ford and Champion,

2000; Zhu, 1998; Newbold, 1998).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지방, 즉 유출지역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유출지역의 배출요인과 이주자의 선별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이들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은 지역발전 전략 수립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이 이주자의 개인 속성과 상호작용하여 지역에 따라 개인 속성이 이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보다 구체적인 이주과정을 포착하는 작업은 최근의 지역인적자원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논의를 인적자원의 이동 측면을 포함한 보다 현실적인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B00663)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Geography Education Major, Cheju National University)(kwonsc@cheju.ac.kr)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유출지역의 특성과 이주자 개인 속성으로 구분해 이들이 이동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시기별로 평가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이들 지역, 개인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해 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인구유출 과정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개인별 미세표본 자료와 지역별 총계자료에 기초하여, 첫째 수도권으로 이주한 인구의 규모와 이전 거주지인 유출지역의 특성을 개관하고, 둘째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유출지역 특성과 개인별 속성의 지역 그리고 개인 단위의 자료를 동시에 고려하며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시기별로 구분지어 평가해보고, 셋째 지역 특성과 개인 속성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다차원분석을 통해 개인 속성이 이주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세부적인 이동과정을 포착해 보게 된다. 이러한 유출지역 입장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접근해 보는 것은 최근의 지역인적자원 육성 논의에 인적자원의 이동성향을 더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2. 지역발전과 인구이동

최근 지역인적자원 육성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역인적자원은 지역차원의 인적자원 육성을 전제로 하지만, 지역간의 기회구조의 차이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과 같은 과도성장은 지방으로부터의 인재유출을 유발시키고 있다. 유출지역 입장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배출요인과 이주자의 선별성으로 구분지어 검토해 보는 것은 지역인적자원육성을 지역차원에서의 교육투자를 넘어 인적자원의 이동성향을 고려한 인재 확보 또한 현실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위해 중요함을 보여준다.

1) 지역발전과 인적자원

최근의 지식기반경제의 등장에서 지역개발 전략은 인적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희수, 2001; Clark and Gaile, 1998).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국가차원의 경제성장에 치중되

어온 성장거점방식의 발전 전략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이루어 왔고 이후의 여러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누적적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경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도시성장의 단계적인 결과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초기 성장단계에서 선별적으로 발전된 도시지역으로 취업기회를 찾아 이주해 가는 도시화, 도시의 외곽 팽창의 교외화, 그리고 보다 원거리까지 이주해 가는 탈도시화 과정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지역 전체가 점차 하나의 기능지역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권용우·이자원, 2001).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집중은 국내의 성장지향 전략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고 점진적으로 지방의 상대적 박탈로 이어지고 있어 수도권내의 문제로 한정시키기 어려운 상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수도권 입장에서 양적인 측면에 기초하여 규제를 통해 해소하려는 접근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떠한 지역에서 누가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질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지역개발 전략의 인적자원 강조와 연계시켜 보면 인구이동에 대한 질적 측면의 관심은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진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역발전의 기반이 전통적인 입지의 우위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비교우위를 높이는 것에서 전문지식과 지역내 생산체제의 발전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을 포함한다(이희수, 2001; Clarke and Gaile, 1998).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개발은 지역인재육성을 통해 점차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최근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학습지역(learning region) 또한 자연자원에 기초한 비교우위보다 지식창조에 기초한 경쟁우위를 강조한다(조명래, 1998; Florida, 1995). 지역 인적자본은 혁신, 기업창출, 그리고 기업간의 연계, 그리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대량생산 지역은 육체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의 노동자를 다수 필요로 하게 되고 이들은 관리나 지적인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교육체계 또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지식기

반경제에서의 교육은 평생학습을 유도하는 학습체
계여야 하고 지역경제내에서의 연계를 제공할 필
요가 크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
발을 위해 평생교육체제 그리고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을 추진하며 지역상황에 필요한 인력, 인재육성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특히
NURI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대학이
지역인력 양성과 기술을 창출하는 목적과 지역발
전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소, 비정
부기구(NGO) 등 혁신주체들이 공동으로 자율적으
로 발굴한 혁신과제를 지원해 지역의 자발적 혁신
역량을 배양, 강화해 다양한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대
학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혁신에 필요한 지
식과 사람을 배출해 이들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을
키우고,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특성화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을 지역 대학에서 배출
하고,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우수한 인재가 다시 모이는 지역발전의 상승작용
을 촉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NURI사업은 지역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서는 지역상황에 맞는 교육에의 투자와 직업훈련
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투자마저도 주저하였는데 그 원인은 물리적 자본
에 비해 인적자본은 투자후 효과를 거두는데 시간
이 소요되고, 쉽게 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소
유할 수 없는 자산이고, 상대적으로 매우 이동성향
이 높아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기간을 고려해야 한
다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Clarke and Gaile,
1998).¹⁾ 이는 최근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이루
어지고 있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지원에 단지 정태
적 측면의 육성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취업기회를
제공받고 뿌리내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동태적 측면의 인재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인구이동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오
래된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지역혁신
의 주체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육성에 관
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적자원의 이동성향에 대
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인구
이동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
의 사회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리적 현상으로, 인
구집중은 지리적으로 양극화되어 가는 지역구도를
반영하는 결과로 고려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이은우, 1998; 김성태·장성호, 1997; Robinson,
1996; Plane and Rogerson, 1994). 이러한 지역간
인구이동 연구는 지역별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조건 또는 공간경제구조의 차이에 기초하여 인구
이동의 방향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시기
별 변화를 통해 공간체계와 그 변화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Miller, 1995; Frisbie
and Poston, 1978).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들은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모든 이주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
정함으로써 생태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하
게 되며 지역내 변화를 포착하지 못해 결과의 해
석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참조: Withers, 2001; 이
상일, 2001).

최근 인구이동에 대한 질적인 측면의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이전에는
설문조사나 추적조사(longitudinal survey)와 같은
특별조사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에 의존하기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래에는 개인별
미세자료가 보편화되며 누가 어디로 이동하는 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해지며 기술적인
사례 연구들이 스코틀랜드, 타이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tockdale,
2002; Ford and Champion, 2000; Lin and Liaw,
2000; Ma *et al.*, 1997). 또한 지역, 개인의 두 차원
자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분석(multi-level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세부적인 이주과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Subramanian *et al.*,
2001; Walters, 2000; Zhu, 1998; Liaw, 1990; 정기
원, 1989).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아직 수도권 집중
에 대한 연구가 인구이동의 규모와 공간적 패턴에
치중하여 질적인 측면의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에 비추어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에 대한 유출지역에서의 인구배출요인으로써의 지역 특성 그리고 이주자의 선별성에 기초한 인구이동 분석은 시기적절하다 하겠다. 특히 이들 개인 속성과 지역 특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는 인재의 지역내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실제적인 이주과정을 포착하는 접근으로 지역 특성은 이주자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차원적 현상으로 고려하는 분석은 현실적으로 지역 상황에 적합한 인재확보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차원분석은 기존의 지역단위의 총계된 자료에 기초한 거시적 접근과 개인별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미시적 접근을 통합하여 보다 실제적인 인구이동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전이라 하겠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화와 광역화에 더하여, 지방, 즉 유출지역의 입장에서 인구이동은 지리적 기회구조의 차이에 따른 지리적 이동이며 동시에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이동임을 고려하며 접근해 볼 필요가 크다. 인구유출지역에서 누가, 왜 이동하는 가를 구명하는 작업은 최근의 지역인적자원 육성 정책에 인적자원의 이동성향을 고려한 인재확보 또한 중요함을 부각시켜 보다 현실적인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유출지역의 입장에서 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 두 차원의 요인들이 인구 유출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지역 특성이 이주자의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도출해 보려는 의도를 가진다. 또한 이들의 시기별 변화를 검토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경향에 대한 유출지역에서의 대안적인 설명과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시기별 수도권 인구집중을 전체 이동인구중 수도권 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전 거주지, 그리고 이전 거주지역의 특성을 통해 개괄적으로 검토한

다. 둘째, 수도권으로 이주한 개인,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개인 그리고 이주하지 않은 개인으로 구분하여 유출지역 상황 예를 들면 실업률, 경제기반 등과 이주자 선별성, 예를 들면 연령, 교육정도 등을 나타내는 변수를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센서스 시기별로 수행한다. 분석에서 나타난 변수별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개인 속성과 지역 특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각 시기별 이들 상대적 중요도의 변화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대한 지역차 또는 사회적 이동 성향에 기초한 질적 측면의 설명과 논의를 시도해 본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이동에 대한 개인 속성과 지역 특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특성이 인구이동에 개인 속성이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는 보다 세부적인 이동과정을 검토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인구주택총조사의 2퍼센트 표본 개인별 원시자료를 기초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1990, 1995 그리고 2000년로 구분하여 분석·검토한다. 분석에 포함되는 지역 특성은 통계청의 시군구별 집계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원자료)를 활용하게 되며, 개인 표본은 21세에서 64세로 이주결정을 하게 되는 근사치로 제한하였다. 우선 각 센서스별로 수도권으로 이주한 인구를 지역별, 개인 속성별로 선별하여 개관한 후,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개인 속성과 지역 특성 변수로 구분하여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여기에 수도권 이주자는 현거주지가 수도권이지만 5년전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닌 자, 비이주자는 현거주지와 5년전 거주지가 같거나 같은 지역내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개인별 속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지역 특성으로는 도시-농촌, 실업률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이들 결과를 회귀계수를 표준화하여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 그리고 변화를 검토하여 유출요인의 특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지역 특성이 개인 속성보다 이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불균형 상황이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장년층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 속성이 보다 커다란 영향을 보인다면 이는 사회이동의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인적자원 유출 현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 속성과 지역 특성의 상호작용을

포함시키며 개인별 속성이 이주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특성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분석해 보다 세부적인 인구유출 과정을 포착해 본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유출 지역 입장에서 지역별 특성과 이주자의 선별성에 기초하여 시기별로 검토해 봄으로써 인구집중 경향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과 설명을 시도해 보려는 의도를 가진다.

3.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유출지역에서의 배출 요인과 선별적인 인구의 이동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우선 수도권 이주의 특성을 개관하고, 유출지역의 특성과 이주자의 개인 속성이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시기별로 평가해 보고,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이 모든 이주자에게 평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보다는 이주자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보여, 유출지역 입장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수도권 이주의 개관

우리나라 인구이동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이촌향도 현상이 1980년 중반까지 지속되어 오다, 1990년대부터 도시간 이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 양상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를 반영하고 있다(이기석, 2004; 최진호, 1996). 전체 인구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이동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원자료)의

현거주지와 5년전 거주지를 이용하여 수도권, 광역시, 시·군 경계를 넘어 이동한 인구로 구분하여 이들의 분포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5년전 거주지가 비수도권인 이동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전체 이동인구 중 수도권으로의 이동인구 규모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인구는 점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양적 규모의 집중에 대한 관심보다 전체 이동인구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구교환의 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인적자원의 이동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수도권 이주자를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자기 의지로 이동을 결정하는 연령에 초점을 맞추어 21세에서 64세까지 만을 대상으로 5년전 거주지를 광역시, 도로 구분해 보면 <표 2>와 같다. 1990년을 기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순으로 정리해 보면, 충청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전라북도로 10퍼센트 이상을 보이고 있다. 낮은 비율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구규모에 따른 분포로 보여 지지만,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이 인구규모가 큰 지역과 일치하지 않아 다른 지역 특성이 인구이동에 반영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²⁾

이러한 분포는 1995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부산시 그리고 경상남도가 1990년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의 수도권으로 유출 인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 성향은 영남권 지역의 탈산업화 경제상황에서 비롯된 것

표 1.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이동인구의 연도별 이동구분과 분포

이동구분 \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비수도권 ⇒ 수도권	27,098 (33.2%)	23,383 (30.6%)	18,978 (17.6%)
수도권 ⇒ 비수도권	11,797 (14.5%)	15,548 (20.4%)	24,760 (23.0%)
비수도권 ⇒ 비수도권	42,730 (52.3%)	37,367 (49.0%)	64,081 (59.4%)
전체	81,625 (100%)	76,298 (100%)	107,819 (100%)

주: 이동인구는 5년전 거주지와 현거주지가 수도권, 광역시, 시·군 경계를 달리하는 경우이며, 북한과 외국을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원자료).

표 2. 수도권 거주자의 5년전 거주지별 분포 비율

5년전 거주지 \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충청남도	14.1	11.4	10.1
전라남도	13.7	12.5	9.6
강원도	12.9	12.8	11.8
전라북도	12.5	11.3	10.9
경상북도	9.0	8.9	8.3
부산광역시	8.3	10.6	11.0
충청북도	8.3	7.1	7.0
경상남도	7.4	7.9	9.3
대구광역시	5.1	6.0	6.8
광주광역시	4.2	5.8	6.9
대전광역시	3.4	4.4	6.6
제주도	1.1	1.3	1.6
전체(N)	100%(18,705)	100%(17,047)	100%(14,018)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원자료).

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 유출지역 특성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2000년에는 강원도와 부산시 그리고 전라북도가 높은 비율을 보여 이촌향도와 도시간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른 대도시 지역 또한 조금씩 그 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전의 경우 1995년 4.4퍼센트에서 6.6퍼센트로 증가하여 도시간 인구이동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이동자 분포는 최근으로 오며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던 양상이 점차 균등하게 분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전라남도, 강원도와 같은 높은 수도권으로의 이주인구 비율을 보이던 지역들은 그 비율을 낮추고 있으며, 모든 대도시지역과 경상남도, 제주도 지역이 수도권으로의 이주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이주자를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여 보면, 1990년의 경우 시부의 비율이 47.5퍼센트로 군부에 비해 낮은 비율이었으나 1995년 72.1퍼센트

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2000년에는 81퍼센트로 대다수의 수도권으로의 이주는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구역의 변천, 특히 1995년의 도농통합시 설치로 인한 도시로부터의 이동 증가를 포함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표 2>에서 광역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보면 수도권으로의 이주는 이촌향도 양상에서 점차 도시간 이동의 양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으로 이주자를 보낸 유출지역의 특성을 시기별로 개관해 보면, 1990년의 경우 군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촌향도의 모습을 보이지만, 점차 도시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도시지역에서 인구를 유출시키고 있는 양상으로, 점차 개인의 선별적 인구이동 특성 그리고 농촌/도시 지역특성을 포함한 보다 세밀한 지역 특성이 인구이동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2) 개인 속성, 지역 특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인구이동은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이기에, 지역별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조건 또는 공간경제구조의 차이 그리고 개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인 속성에 따른 선별적인 합리적 선택에 기초하여 인구이동의 방향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이주 결정에 압출과 선택의 상황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지역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하겠다.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속성으로는 보편적으로 연령, 교육정도, 성, 결혼상태 등이 고려

표 3. 수도권 거주자의 연도별 5년전 거주지 분포

5년전거주지 \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시부	8,887 (47.5%)	12,295 (72.1%)	11,355 (81.0%)
군부	9,818 (52.5%)	4,752 (27.9%)	2,663 (19.0%)
전체	18,705 (100%)	17,047 (100%)	14,018 (100%)

주: 시, 군 구분은 조사연도의 5년전 거주지 행정구역 구분에 따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원자료).

되며 지역변수로는 취업, 교육, 문화 등의 기회수준을 고려하여 실업률, 제조업 비율, 교육기관 수, 의사 수 등 상당히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며,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변수를 조작적으로 도출해 내기도 한다(이성우, 2002; Foulke and Newbold, 2000).³⁾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으로 이주한 자와 지역내 체류 또는 이주자,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주자와 지역내 체류 또는 이주자로 구분하여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의 경우 개인 속성 변수와 더불어 지역 특성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 변수들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며 여러 차례의 실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종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은 개인 속성 변수(Person) 4개와 변수간 상관계수가 높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지역 특성 변수(Region)를 4개를 포함하여,

$$\text{Ln}[\text{Prob}_{\text{mig}}/(1-\text{Prob}_{\text{mig}})] = a + (b \cdot P_1 + \dots + e \cdot P_4) + (f \cdot R_1 + \dots + i \cdot R_4) + \varepsilon$$

와 같이 설정하였다. 여기에 개인 속성 변수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지역 특성 변수로는 실업률, 제조업 비율, 노동직 비율, 그리고 농촌/도시 구분이 포함되었다.⁴⁾

<표 4>는 수도권으로의 이주자, 비수도권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의 경우 부(-)의 기호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높아지면 이주성향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높은 이주성향으로 연결되어 나타나, 고급인력일수록 낮은 노동시장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기혼이 미혼에 비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이주성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의 경우, 농촌/도시는 부(-)를 보여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높은 이주성향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2000년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점차 인구이동이 도시간 현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비율 또한 음으로 제조업 비율이 높을수록 이주성향은 낮아 취업기반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동에서 뚜렷하게 보여 진다 하겠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이주는 제조업 비중과 부(-)로 작용하지만 비수도권으로의 이주에는 정(+)으로 작용하여 수도권, 비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이주성향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직 비율 또한 정의 관계로 지역 취업기회가 부족하거나 하급 직종이 다수인 경우 인구 압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몇몇 예외적인 관계를 보이는 비수도권 이동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인구유출은 낮은 연령과 높은 교육수준의 개인, 높은 실업률, 노동직 비율, 그리고 낮은 제조업 비율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쉽게

표 4. 수도권, 비수도권 이주자의 개인 속성과 이전 거주지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계수

독립변수(개인, 지역)	1990년		1995년		2000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연령	-0.093**	-0.091**	-0.068**	-0.067**	-0.067**	-0.069**
성별(남=0, 여=1)	0.035**	-0.069**	0.123**	0.066**	0.137**	0.005**
교육수준	0.039**	0.018**	0.146**	0.122**	0.199**	0.114**
결혼상태(미혼=0, 기혼=1)	0.556**	1.064**	0.333**	0.978**	0.294**	0.944**
실업률	0.002**	-0.046**	0.073**	0.020**	0.129**	0.078**
제조업비율	-0.023**	-0.002**	-0.022**	0.014**	-0.022**	0.008**
노동직비율	0.004**	0.000**	0.013**	0.032**	0.025**	0.031**
농촌/도시(농촌=0, 도시=1)	-0.472**	-0.574**	-0.315**	-0.354**	-0.009**	-0.013**
상수	0.360**	0.877**	-2.805**	-3.823**	-4.872**	-3.907**
-2LL	116596.1	168602.3	109605.2	171072.3	94284.3	166738.9
표본수	240,759	252,879	254,331	267,797	258,500	273,911

* p<.05; ** p<.01

사용할 수 있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종속 변수가 양분값(dichotomous value)의 확률로그를 갖기 때문에 일반 통계분석패키지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화된 로지스틱 회귀계수는 다음의 공식, $b_{YX}^* = (b_{YX}) \cdot (S_X) \cdot (R) / S_{\logit(\hat{Y})}$ 에 의해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b_{YX}^* 는 표준화된 로지스틱 회귀계수이고, b_{YX} 는 비표준화 로지스틱 회귀계수, S_X 는 독립변수 x의 표준편차, R은 일반 회귀분석에서 추정된 종속변수값을 다중회귀분석에 사용했을 경우의 설명량, $S_{\logit(\hat{Y})}$ 는 $\logit(\hat{Y}) = \text{Ln}[\hat{Y}/(1-\hat{Y})]$ 식을 이용하여 $\logit(Y)$ 의 추정값을 사용하여 계산한 분산값이다(Menard, 1995).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위의 공식에 의해 계산한 표준화된 로지스틱 회귀계수를 1990년을 기준으로 높은 값에서 낮은 값으로 배열하면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연령은 모든 연도에 걸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성별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도시의 지역 특성은 점차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어, 이촌향도의 인구이동은 1990년까지는 중요하였으나 점차 그 중요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보면, 1990년의 경우 가장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으로, 부(-)의 값을 가져 젊은 층일수록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며,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제조업 비율로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이주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노동직 비율과 성별 그리고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

다. 1995년 이후부터는 교육수준이 연령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여 보다 개인적 속성에 따른 이주성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율, 노동직 비율, 그리고 실업률이 중간정도의 중요도를 보여 지역 특성 또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표 6>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 그리고 각 변수들의 시기별 상대적 중요도 변화를 추적하기 쉽게 배열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보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이주성향을 파악 가능하게 해준다. 전체적으로 연령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같은 변수를 연결하고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다른 변수들의 차이를 살필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점차 그 차이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나타나는데 교육수준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이주에서는 연령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이지만 비수도권으로의 이주에서는 중요도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 비율 또한 전체적으로 비수도권에서 낮게 나타난다. 반면 결혼상태, 노동력 비율은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에서 중요하게 나타나, 노동직에 종사하는 가족단위 이주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이주 성향은 교육수준, 제조업 비율에 의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받아 비수

표 5. 수도권, 비수도권 이주자의 개인 속성과 이전 거주지 특성에 대한 표준화된 로지스틱 회귀계수

독립변수(개인, 지역)	1990년		1995년		2000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연령	-0.912**	-1.039**	-0.614**	-0.689**	-0.507**	-0.653**
제조업비율	-0.309**	-0.035**	-0.236**	0.173**	-0.174**	0.081**
농촌/도시(농촌=0, 도시=1)	-0.186**	-0.266**	-0.094**	-0.121**	-0.002**	-0.004**
결혼상태(미혼=0, 기혼=1)	0.172**	0.380**	0.097**	0.322**	0.073**	0.293**
교육수준	0.132**	0.068**	0.429**	0.408**	0.471**	0.339**
노동직비율	0.053**	0.007**	0.174**	0.466**	0.324**	0.499**
성별(남=0, 여=1)	0.014**	-0.033**	0.046**	0.028**	0.043**	0.002**
실업률	0.004**	-0.153**	0.113**	0.035**	0.221**	0.169**

* p<.05; ** p<.01

표 6. 수도권, 비수도권 이주자의 개인 속성과 이전 거주지 특성에 대한 표준화된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순위배열

1990년			1995년			2000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연령		연령	연령		연령	연령		연령
제조업비율		결혼상태	교육수준		노동직비율	교육수준		노동직비율
농촌/도시		농촌/도시	제조업비율		교육수준	노동직비율		교육수준
결혼상태		실업률	노동직비율		결혼상태	실업률		결혼상태
교육수준		교육수준	실업률		제조업비율	제조업비율		실업률
노동직비율		제조업비율	결혼상태		농촌/도시	결혼상태		제조업비율
성별		성별	농촌/도시		실업률	성별		농촌/도시
실업률		노동직비율	성별		성별	농촌/도시		성별

주: 지역 특성 변수는 개인 속성 변수와의 구분을 위해 기울임체로 나타내었음.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비해 보다 경제적인 동인에 의한 것임을 추론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주결정 요인이고 결혼상태의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비해 젊은 고학력자의 높은 이동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실업률과 제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동시에 고려해 보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 이주자의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으로 오며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 지고 있어, 유출지역에서 인적자원을 육성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동성향을 보이는 고급인력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배출 요인의 상황을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지역 특성과 개인 속성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다차원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주자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부각시켜 보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개인 속성과 지역 특성의 상호작용

인구이동은 지역간 기회구조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게 되며, 또한 개인별 속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 특성과 개인 속성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보다는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인구이동 과정을 이해하는 접근이 될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여부에 대한 개인 속성(P)과 지역 특성(R)을 포함한 앞에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 개인 속성과 지역 특성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게 되면 (개인속성)*(지역특성) 변수를 포함하여 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P₁)과 제조업 비율(R₁)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Ln}[\text{Prob}_{\text{mig}}/(1-\text{Prob}_{\text{mig}})] = a + (bP_1 + \dots + eP_4) + (fR_1 + \dots + iR_4) + jP_1 * R_1 + \varepsilon$$

위의 모델을 다시 배열하면, $\text{Ln}[\text{Prob}_{\text{mig}}/(1-\text{Prob}_{\text{mig}})] = a + (b + jR_1)P_1 + (cP_2 + \dots + eP_4) + (fR_1 + \dots + iR_4) + \varepsilon$ 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교육수준(P₁)이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 (b + jR₁)은 지역 특성인 제조업 비율(R₁)에 따라 달라짐을 볼 수 있다.

<표 7>은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미치는 교육수준의 영향을 제조업 비율과 노동직 비율과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⁵⁾ 최근의 지역발전 논의에서 교육수준은 지역인적자원 육성에서 중요하며 인구이동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며, 제조업과 노동직 비율은 지역노동시장의 취업기반과 종류를 반영하는 지표로, 이들의 상호작용은 특정 교육수준의 개인의 이주성향이 거주지역의 제조업과 노동직 비율에 의해 변화하는 정도를 보여주게 된다. <표 7>의 결과를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델의 분석결과(표 4)와 비교해 보면 기호의 변화없이 계수 값에서만 약간의 변화를 보여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7. 수도권 이주자의 개인 속성과 이전 거주지 특성,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계수

독립변수(개인, 지역, 상호)	1990		1995		2000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연령	-0.094**	-0.093**	-0.068**	-0.067**	-0.067**	-0.067**
성별(남=0, 여=1)	0.038**	0.038**	0.122**	0.124**	0.137**	0.139**
교육수준	0.002**	0.115**	0.126**	0.123**	0.188**	0.146**
결혼상태(미혼=0, 기혼=1)	0.573**	0.568**	0.338**	0.330**	0.295**	0.288**
실업률	0.002**	0.002**	0.073**	0.073**	0.129**	0.128**
제조업비율	-0.058**	-0.023**	-0.037**	-0.022**	-0.030**	-0.022**
노동직비율	0.004**	0.025**	0.013**	0.009**	0.025**	0.012**
농촌/도시(농촌=0, 도시=1)	-0.479**	-0.472**	-0.302**	-0.321**	-0.005**	-0.024**
교육수준*제조업비율	0.003**		0.001**		0.001**	
교육수준*노동직비율		-0.002**		0.000**		0.001**
상수	0.839**	-0.626**	-2.534**	-2.511**	-4.730**	-4.142**
-2LL	116380.4	116487.2	109576.9	109599.5	94281.0	94261.8

* p<.05; ** p<.01

<표 7>의 결과 이해를 위해 제조업과 교육수준의 연도별 상호작용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의 예측된 수도권으로의 이주 확률은 추정된 회귀계수와 더불어 제조업 비율과 교육수준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다고 고려하여 평균값을 주어 계산한 값으로, 교육수준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지만(그림에서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교 졸업으로 나타냄), 이는 다시 제조업 비율(x축의 비율 값)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수준별 이주확률을 보면 대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졸업자 순으로 높은 이주확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교 졸업자의 이주확률은 최근으로 오며 더욱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자의 이주확률과 점차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주확률 또한 점차 높아진 모습이다. 각 연도별로 나타나는 각 교육수준별 이주확률 선 그래프의 기울기는 교육수준이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이 거주지역의 제조업 비율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의 1990년 경우 평균 교육수준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개인이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은 지역 특성의 평균 상태를 고려한 제조업 비율이 약 21퍼센트인 경우 0.052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조업 비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이주할 확률이 높아져 약 5퍼센트인 경우 0.065로 나타나고, 제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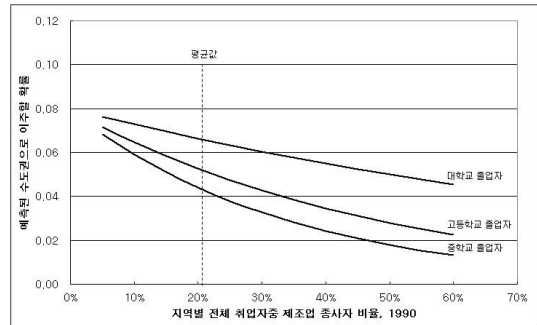


그림 1. 제조업 비율에 따른 교육수준이 수도권 이주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1990)

이 높은 약 60퍼센트인 지역의 경우 0.023으로 나타난다. 이는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개인이라도 지역 상황에 따라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그림 2>는 1995년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의 개인이 제조업 비율 평균이 약 23퍼센트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은 0.048 정도이며, 1990년에 비해 약간 가파른 기울기는 제조업 비율 변화에 따른 이주확률의 변화가 조금 크게 나타남을 반영한다.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제조업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자에 비해 높은 이주확률을 보이며, 보다 제조업 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은 2000년의 상황으로, 제조업 비율의 평균이 약 19퍼센트인 지역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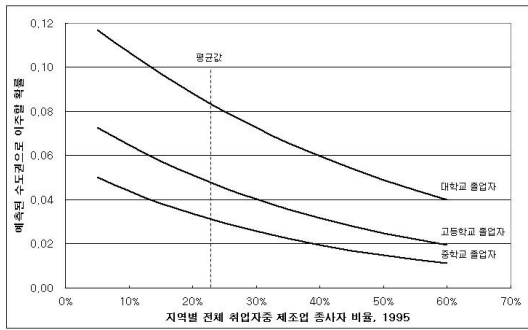


그림 2. 제조업 비율에 따른 교육수준이 수도권 이주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1995)

의 개인이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할 확률은 0.037로 앞의 두 연도에 비해 더욱 낮아진 모습이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거주지역내 제조업 비율의 영향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조업 비율의 변화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주확률 또한 더욱 완만해진 기울기에서 보여 지듯이 아주 적은 변화만이 나타나고 있어 점차 제조업 비율이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분석 결과들은 개인별 교육수준이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특성으로 고려된 제조업 취업자 비율에 따라 변화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노동직 종사자비율의 경우는 정(+)의 기호를 보여 제조업의 경우와 달리 비율이 높을수록 이주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교육수준과의 상호작용 변수를 고려해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수도권으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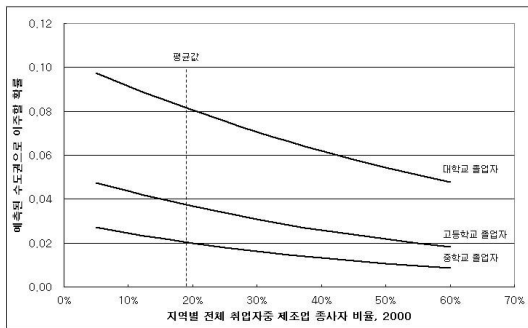


그림 3. 제조업 비율에 따른 교육수준이 수도권 이주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2000)

이주확률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가장 노동직 종사자 비율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타나 민감하게 지역 특성에 반응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⁶⁾

위의 분석은 개인 속성이 주민의 이주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지역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선별적 이동성향을 증대 또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지역인적자원육성 측면에서 교육수준의 경우를 사례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도권으로의 이주성향은 높게 나타나지만 그 성향은 제조업 비율이 높은 경우 감소되어 나타나며 최근 들어 대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에서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 제공하는 취업기회가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동직 종사자 비율의 경우는 제조업과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도권으로의 이주성향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들 분석 결과들은 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출하는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상황과 개인 차원의 선별적 이주성향을 고려한 인적자원 육성과 확보 전략에 시사점을 준다. 수도권으로의 이주성향이 가장 높은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층으로, 제조업 비율이 낮고 노동직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급인력의 유출은 거주지역 취업기회의 양과 질로부터 중요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인재육성은 교육기회를 늘리는 정태적 차원의 접근과 더불어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층을 위한 고급 일자리를 늘려 두뇌유출을 최소화하고 인재를 지역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성공적일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지방의 입장에서 유출지역의 특성과 이주자의 선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보고, 이들의 시기별 변화를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한 대안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기존의 접근은 각 지역별 인구이동을 지역 특성

반영하는 변수를 통하여 설명하는 지역단위의 집합적 모델을 보편적으로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이동을 지리적 이동입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은 이주자의 선별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를 유출지역의 특성과 더불어 고려해 봄으로써 최근 지역인적자원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논의를 인적자원의 이동성향을 포함시키며 발전시켜 보게 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개인 속성과 유출지역 특성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층이 높은 이주성향을 보이며, 제조업 비율은 낮고 노동직 비율은 높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이주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회귀계수를 표준화하여 이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보면, 연령은 연도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며, 성별은 반대로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으로 오며 교육수준이 점차 상대적 중요도를 높이고 있으며 제조업, 노동직 비율, 실업률의 지역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수도권으로의 이주 변수들을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 제조업 비율 등이 보다 중요하게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보다 경제적인 고려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역 특성은 독립적으로 주민들의 이주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선별적 이동성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인 속성이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특성에 따라 증대 또는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인재육성은 단순히 양질의 교육기회를 지역내에서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을 해당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양질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것 또한 중요함을 분석결과에 나타난 이동성향에서 알릴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의 지역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노력은 광범위한 평생교육체제의 확대와 더불어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시행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역제 일변도의 입장에서 인적자원을 지역성장의 원동력으로 중요시하며 지역차원에서 인재육성을 통해 자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최근까지 개발도상국들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주저한 배경에는 이동성향이 매우 높고, 투자효과를 거두는 데 장기적인 기간을 요하는 특성이 있어 인적자원은 한정된 자원의 투자효율을 높이는 데 적절한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지역인재육성을 통해 이룩하려는 최근의 관심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유출지역 입장에서 선별적인 개인의 이주결정인가 아니면 지역 특성에 따른 인구유출인가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현실적으로 양자가 모두 작동하고 있음을 검토한 본 연구는 지역차원의 인적자원 육성과 더불어 인적자원의 이동성향을 고려해 이들을 지역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한 기존의 총량적인 접근을 보다 진일보시켜 지방의 압출요인과 이동인구의 선별성으로 구분지어 이주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인재육성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접근이라 하겠다. 지방의 경제기반, 교육, 주택시장 등의 지역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개인 속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되기에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에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고려되는 질적 측면의 인구이동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학술적 중요성 못지않게 현실적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로 중요하다 하겠다.

註

- 1) 불균형발전이 심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두뇌유출이 보편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균형발전을 위한 안으로 국가고시와 주요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지역인구비례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할당하자는 인재지역 할당제가 인적자원의 지리적 이동을 고려한 경우라 할 수 있다(조명래, 1998).
- 2) 1990년의 경우 사도의 인구규모 순은: 부산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대구직할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그리고 제주도로 전라남도를 제외하고 인구규모 상위의 지역들이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분포에서는 중간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 3)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는 지역 경제, 사회상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여러 변수를 지수화 또는 요인분석하여 새로운 변수를 제시하기도 한다(Zhu, 1998; Frisbie and Poston, 1978). 후자의 경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지만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다수의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VIF(Variable Inflation Factor)수치가 10이하이면 독립적인 변수로 고려된다(Fox, 1991).

- 4)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5년전 거주지의 지역 상황에 기초하여 정의되었는데, 실업률, 제조업 비율, 노동직 비율, 그리고 농촌/도시 구분이 그들이다. 노동직 비율은 통계청 직업 대분류에서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종사자'와 '생산 및 관련 종사자'를 묶어 지역의 전체 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값이다. 농촌/도시 구분은 행정구역상 군부는 농촌, 시부는 도시로 구분하였으며, 실업률, 제조업 비율, 노동직 비율로 나타나지 않는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개괄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도농통합시가 1995년에 다수 생겨나며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다소 모호해져 2000년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농촌/도시 변수는 1995년의 분석에서 이미 그 상대적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 5) 모든 개인 속성과 지역 특성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 분석에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제기되기에 의미있는 변수만을 선택하여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다.
- 6) 앞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경우와 같이 노동직 종사자 비율이 교육수준별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졸업으로 고려했을 경우 모든 연도에서 대학교 졸업자가, 그리고 모든 교육수준에서 점차 최근으로 오며 노동직 종사자 비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 2003,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 정책토론회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동도원.
 권상철, 2001,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Human Capital Drain in Korea,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 67-79.
 권용우·이자원, 2001,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34, 151-165.
 김성태·장성호, 1997, 한국 지역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요인: 1970-1991, 국제경제연구, 3, 175-197.
 이기석, 2004, 한국 도시화의 공간적 이해를 위하여, 박삼욱 외,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 탐색, 개정판, 한울, 129-146.
 이상일, 2001, Spatial Statistical Approach to Migration Studies: Exploring the Spatial Heter-

ogeneity in Place-specific Distance Parameters,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 107-120.
 이성우, 2002, 지역 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이동과 연계이동, 지역연구, 18, 49-82.
 이은우, 1998, 지역간 삶의 질 차이와 인구이동과의 관계, 경제학논집, 7, 233-245.
 이희수, 2001,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정기원, 1989, 거주지 이동에 관한 모형의 설정-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통합, 한국인구학회지, 12, 30-42.
 조명래, 1998,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지역 할당제 도입의 역할,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0, 1-18.
 최진호, 1997,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 1960-1990, 한국인구학회(편), 인구변화와 삶의 질, 일신사, 63-89.
 통계청, 1985,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원자료).
 통계청, 2002, 시군구 100대 지표.
 Cadwallader, Martin, 1992, *Migration and Residential Mobility: Macro and Micro Approache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Clarke, S. and Gaile, G., 1998, *The Work of Cit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Feser, Edward and Sweeney, Stuart, 2003, Out-migration, depopulation, and the geography of US economic distres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6, 38-67.
 Florida, R., 1995, Toward the learning region, *Futures*, 27, 527-536.
 Ford, Tania and Champion, Tony, 2000, Who moves into, out of and within London? an analysis based on the 1991 census 2% sample of anonymised records, *Area*, 32, 259-270.
 Foulkes, Matt and Newbold, K. Bruce, 2000, Migration propensities, patterns, and the role of human capital: comparing Mexican, Cuban, and Puerto Rican interstate migration, 1985-1990, *Professional Geographer*, 52, 133-145.
 Fox, John, 1991, *Regression Diagnostics*, Sage

- Publications.
- Frisbie, W. and Poston, Dudley, 1978, Sustenance differentiation and population redistribution, *Social Forces*, 57, 42-56.
- Krieg, Randall G., 1991, Human-capital selectivity in interstate migration, *Growth and Change*, 22, 68-77.
- Liaw, Kao-lee, 1990, Joint effects of personal factors and ecological variables on the interprovincial migration pattern of young adults in Canada: a nested logit analysis, *Geographical Analysis*, 22, 190-208.
- Lin, Ji-ping and Liaw, Kao-lee, 2000, Labor migrations in Taiwan: characterization and interpretation based on the data of the 1990 censu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2, 1689-1709.
- Ma, Z, Liaw, K-L, and Zeng, Y., 1997, Migrations in the urban-rural hierarchy of China: insights from the microdata of the 1987 National Survey, *Environment and Planning A*, 29, 707-730.
- Menard, Scott, 1995, *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age Publications.
- Miller, Glenn H., 1995, Dynamics of the US interstate migration system, 1975-1992, *Growth and Change*, 26, 139-160.
- Newbold, K. Bruce, 1998, Outmigration from California: the role of migrant selectivity, *Geographical Analysis*, 30, 138-152.
- Pekkala, Sari, 2003, Migration flows in Finland: regional differences in migration determinants and migrant type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6, 466-482.
- Robinson, Vaughan, 1996, The geographical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human migration, in Robinson, V. (ed.), *Geography and Migration*,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11-28.
- Stockdale, Aileen, 2004, Rural out-migration: community consequences and individual migrant experiences, *Sociologia Ruralis*, 44, 167-194.
- Subramanian, S., Duncan, Craig, and Jones, Kelvyn, 2001, Multilevel perspectives on modeling census data, *Environment and Planning A*, 33, 399-417.
- Walters, William, 2000, Assessing the impact of place characteristics on human migration: the importance of migrants' intentions and enabling attributes, *Area*, 32, 119-123.
- Withers, Suzanne Davies, 2001, Quantitative methods: advancement in ecological inferen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 87-96.
- Zhu, Junming, 1998, Rural out-migration in China: a multilevel model, in Bilborrow, R. (ed.), *Migration,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New Directions and Issues*,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57-186.

(접수 : 2005. 10. 5, 채택 : 2005. 11. 20)